

“뿌린대로 거두는 기쁨... 30대 아들도 귀농에서 길 찾아”



박영일·안경자(55) 부부가 수확을 앞둔 노지 포도송이를 살펴보고 있다. 일년새 훌린 굵은 꺾임줄이 거둔 결실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박영일(57·영일농산 대표)·안경자(55) 부부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인 노지 포도수확을 시작했다. 앞으로 9월 말까지 한 달여 간 수확해 서울 가락동 농산물 공판장 등지로 출하하게 된다. 올해는 큰 태풍이 지나가지 않은데다 햇빛이 좋아 포도 알이 굵고, 당도가 높다.

포도수확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단감과 대봉 수확으로 이어진다. 가을은 일년 내내 땀밭에서 우직하게 굵은 꺾임줄을 흘리며 흠을 일군 대가로 결실의 기쁨을 맛보는 시기이다. 수확 이후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가지치기를 하고 거름을 뿌리며 다시 한해 농사를 준비한다.

귀농 후 포도·감 농사 도전=지난 2007년 12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벽돌을 쌓는 조직(組積) 팀장을 맡고 있던 박 대표는 건축경기가 침체하며 귀농을 결심했다. 고향인 해남 땅끝 대신 IMF(국제 통화기금) 경제위기에 먼저 귀농한 선배가 자리를 잡은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로 향했다.

박 대표는 우선 군으로부터 헌집 수리비를 지원받아 동지를 마련한 후 2000평을 임대해 포도와 감 농사를 시작했다. '이 정도면 생활이 안 되겠나?'하고 시작했지만 막상 작은 규모의 농사에서 나온 연간 수익은 1300여만원에 불과했다. 또 농산물 공판장에서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출하량이 돼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차츰 농사규모를 늘려나갔다.

처음 농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지라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반 교육 등 농사관련 교육을 받으며 실력을 키워나갔고, 항상 기계화를 염두에 두고 투자했다.

만 5년이 지난 현재 박씨 부부의 농사규모는 매실 1500평, 노지포도 3000평, 감 1만7000평 등 2만여 평으로 시작 당시보다 10배가량 늘어

건축업 종사하다 포도·감으로 농사 도전

5년만에 10배로 키워 작년 1억5천 수익

아들은 잔디 납품·지역봉사등 활동 왕성

“부지런하고 친화력 좋으면 귀농은 성공”

났다. 지난해 연간 총 수익은 1억5000여만원에 달했다.

포도농사는 선별작업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 다른 과일과 달리 기계화를 할 수 없어 일일이 손으로 특·상·보통 등으로 품질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소 품질이 떨어지는 포도는 즙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박 대표가 귀농한 이듬해인 2008년 개인사업을 하던 차남 상진(32)씨가 아버지를 따라 장성으로 내려왔다. 상진씨는 부모의 농사를 거들 어주다 2011년께 우연한 기회로 신설되는 골프장에 잔디를 납품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았다. 현재 춘잔디 영농조합 법인 이사를 맡아 골프장·건설회사 등지에 장성에서 생산한 잔디를 매입해 납품하고 있다.

또한 군 4H연합회 회장을 맡아 70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독거노인 가구와 저소득층에 보호시설인 '사랑의 종집'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지역사회를 위한 자원봉사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으로 벼·축산(한우)·양돈·과수·시설하우스(토마토) 농사를 짓는 지역 젊은 농사꾼들과 함께 복합 영농 주식회사를 만들 포부를 갖고 있다.

귀농 후 '마음의 여유'기저= "우선 부지런해야 한다. 군 지원 등의 타격을 버려야 한다. 또 마을사람과 선동농가 등 주변 사람들과 잘 사귀며 농사일을 배워야 한다."

박 대표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조건으로 '근면'과 '인화(人和)를 강조했다. 부인 안씨 역시 "집에서 살림만 하다 농사일을 하니 힘든 것도 많지만 열매가 열고 쪼개는 느낌이 좋고, 재미가 있다"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얻는다. 농사일에 주관이 있어야 한다. 일을 쫓아가면 힘들어 일을 앞서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대표 부부와 아들 상진씨는 귀농 후 '맘이 편하다'고 한결같이 표현했다.

아들 상진씨는 "도시생활은 시간에 쫓기며 살았는데, 농사일은 내가 일한 만큼 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똑같은 육체노동을 해도 자연바람을 쐬면서 하는 것과 창고 속에서 일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귀농 희망자들이 견학을 많이 오고 있다"며 "농사짓겠다 하는 사람은 항상 끌어안고, 같이 가겠다"고 강조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KF 한국농어촌공사 후원

전남도, 귀농인 유기농 전도사로 육성

2014년까지 1만가구 유치 목표
농기계·소형하우스 등 지원 확대

전남도가 귀농인들을 친환경 유기농업의 전도사로 양성한다.

전남도는 "귀농인들에게 농림사업을 비롯한 각종 시책 사업들을 적극 지원해 지역농업을 이끌 새로운 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고 27일 밝혔다.

전남도는 오는 2014년까지 4년간 귀농인 1만가구 유치를 목표로 귀농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0년 768가구, 2011년 1521농가(3620명)를 유치했고 올 들어서도 상반기까지 1092농가를 유치했다. 현재 도내에는 7500여 농가가 귀농해 시설원에, 축산 등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도는 매년 전남지역에 귀농하고 싶다는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이들 귀농 가족들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기계나 소형 하우스 등 필요한 사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이들에게 정부의 농림사업은 물론 도 자체사업인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맞춤형 농기계 지원, 원예작물 수출 인프라 구축사업 등 각종 시책사업을 차별없이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도는 각 시·군에 귀농 가족들에게 편견 없이 대해 화합을 유도하고 각종 정부의 시책사업에서도 차별없이 지원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들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장성군, 새내기 체험농장 운영

광주에 인접한 장성지역은 매력적인 귀농·귀촌 희망지로 손꼽힌다. 실제로 지난 2006~2009년 4년간 76가구(202명)이던 귀농·귀촌가구가 2010년 64가구(178명), 2011년 200가구(468명)로 급증했다.

올해 역시 7월말 현재 귀농 84가구(194명)·귀촌 53가구(96명) 등 총 137가구(290)에 달한다.

군은 귀농·귀촌자를 대상으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의 경우 2007년 1월이후 가족과 함께 장성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귀농자를 대상으로 하우스와 저온 창고, 유통·가공시설물 설치 자금을 지원하는 귀농인 창업지원 사업(10개소 2억원)을 비롯해 ▲농가 주택 수리비 지원(25개소 1억2500만원·농가당 500만원 한도 지원) ▲귀농인 실습 지원사업(29개소 3억4800만원) ▲청년창업 인턴제(노동부 지원사업) ▲귀농인 임차료 지원사업 ▲새내기 영농체험 농장 운영 등을 펼치고 있다.

또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으로 용자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최대 2억원을 지원해준다.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박진홍 지도사는 "장성은 대도시와 인접하고 장성군, 축령산 등 매력적인 교육·환경적 요인으로 귀농·귀촌자가 늘고 있다"며 "성공적인 '인생 2모작'을 거둘 수 있도록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문의(061-390-7544) /송기동기자 song@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아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역시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입니다!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중·소 규모의 세미나도 아리랑하우스의 한정식으로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금수장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 - 2111 (계림동 출플러스 건너편)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세미나, 회식 등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편리한 주차, 성공적인 만남을 위한 커피숍